

신간처럼 소개되는 재번역 · 출간된 책들

담당기사의 실수가 일차적 책임...

출판사의 보도자료에도 문제 있어

재번역 · 출간되는 책들이 최초 출간 혹은 신간인 양 일간지 북섹션이나 출판 정보지에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간지 북섹션 담당 기자들은 출판사에 '양심적인' 보도자료를 부탁한다. 출판사들은 책은 저자만이 아닌 편집자의 재해석과 연출에 따라 다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독자들에게 올바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2월 10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북섹션을 읽은 몇몇 독자들은 의아해서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이들 신문이 모로하시 다츠지의 《공자 노자 석가》(심우성, 동아시아)를 대문짝만하게 소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사들을 끝까지 읽은 독자들은 다시 한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느 기사도 이 책이 국내에 네번째 번역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83년 문원각에서 《공자, 노자, 석가의 삼성회담》(임중삼)으로, 1991년 늘푸른나무에서 《공자, 노자, 석가 '삼성회담'》(이순권)으로, 그리고 같은 해 민족사에서 《공자, 노자, 석가, 한 자리에 하시다》(심우성)는 제목을 달고 출간된 바 있다. 그러니까 이번이 벌써 네번째 출간인 셈이다.

이미 번역 · 출간된 사실 지적하지 않아

《중앙일보》는 이 책을 두고 "기존의 성과를 적당히 짜깁기하여 낸 흔한 입문서가 아니라 내공이 밑바탕에 흐르는 노작"이라고 평가하면서 "삼교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믿을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리뷰 기자가 아닌 임동석 건국대 중문과 교수가 서평을 썼다. 임교수는 이 책을 두고 "깊고 엄청난 세 성인의 사상을 백년 살아온 노교수가 정수만을 모아 천의무봉처럼 엮어낸 유불선 삼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변별장치"라고 쓰면서 "이를 번역한 심우

성 선생은 그 자신의 학문과 해박한 지식을 총동원, 구절마다 곁에 출처와 내용을 방주로 실어 읽는 이로 하여금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출판저널》 297호(3월 5일자) 역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이 책이 다시 출간된 책이라는 언급은 없다. 이 책에 대해 이들 신문과 《출판저널》이 보여준 서평과 리뷰의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이 책이 세번이나 출간됐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편집자들의 모임인 인터넷 사이트 <북 에디터>(www.bookeditor.org)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수진씨는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 가운데 두 군데(조선, 동아)에서 동시에 같은 책을 톱(Top)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처음 출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간된 적이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출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미 한 번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출간된 것을 국내 최초 번역이라는 문구를 넣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그 원인이다"고 말하면서 출판사의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을 소개한 《중앙일보》 배영대 기자는 "이미 출간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이 다시 나온 책이라도 신간 이상으로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번역 · 출

간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의 경우, 서평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과 같은 유명 저작의 존재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비록 서평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담당기자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북섹션 승인배 팀장은 "서평 부탁 후 이 책이 이전에 출간됐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책은 그만큼 크기로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지난 3월 17일자 《중앙일보》 북섹션에는 루이스 세폴베다의 소설 《연애소설 읽는 노인》 《감상적 킬러의 고백》 《귀향》(이상 열린책들)이 소개됐다. 조우석 기자는 이 소설들을 소개하면서 "발표된 지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세계적 규모의 평가가 이뤄졌으나 '제1세계 지향성'이 큰 국내에서는 뒤늦게 출간된 것이 아쉬울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내 그의 대표작 세 권이 마저 선보일 경우 '세폴베다 읽기'가 독서시장의 새 풍경으로 등장할 것이 기대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는 "국내 독서시장에 첫 소개되는 남미의 문제작가 루이스 세폴베다(52)의 이름을 일단 기억해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고 쓰고 있는데, 세폴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정창)은 예하에서 1993년 4월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출간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7월 바다출판사에서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유왕무)라는 책이, 1995년 11월 시아출판에서 《세상끝으로의 항해》(우형강)가 이미 출간된 바 있다. 그의 소설은 "국내 독서시장에 첫 소개"된 것이 아니며, 외국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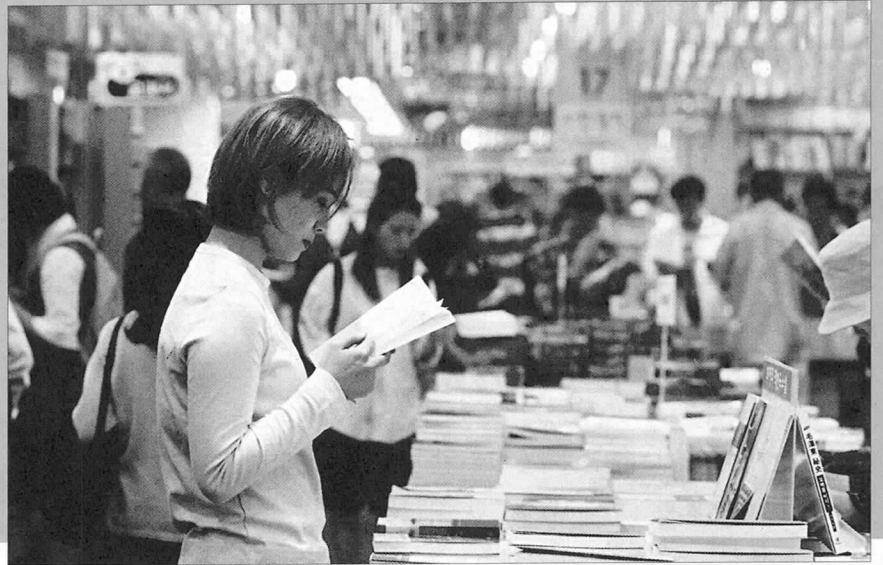
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 알려진 작가다.

얼마 전 들녘에서 출간된 《반론의 예술사 이야기(전3권)》(이덕렬)도 같은 경우다. 이 책은 1999년 7월 문화문고에서 《세계 예술의 역사》(곽복록)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하지만 《반론의 예술사 이야기》를 리뷰한 《동아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한겨레》 기사와 《출판저널》 297호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만약 서평과 제목만을 보고 책을 산 독자라면 이중의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00년 6월 북라인에서 출간한 미셸 투르니에의 《소크라테스와 헤르만 헤세의 점심》(김정란)도 1996년 1월 《상상력을 자극하는 110가지 개념》(이용주)으로 한뜻에서 출간된 바 있다. 《소크라테스와...》 역시 출간 당시 《경향신문》《중앙일보》《한겨레》에 소개됐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책의 경우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 나왔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들 두 책이 전혀 다른 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미셸 투르니에의 팬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주저없이 구입했을 수도 있다.

출판사들의 보도자료에도 문제 있어

담당기자 3~4명으로 제작되는 국내의 열악한 북섹션 제작 현실을 감안할 때, 출판담당 기자의 능력으로 매주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을 처리하기에 힘이 부치는 것은 사실이다. 일간지의 북섹션 담당 기자들은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꼼꼼히 읽어야 하고 관련 자료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책이 과거에 출간된 적이 있는지, 절판된 책의 복간본인지 등 책의 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보도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책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내보낸 첫번째 책임이야 담당기자의 능력과 노력이 모자란다는 데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출판사들이 보내는 보도자료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독서시장에 이전에 출간된 책 일지라도 마치 자신들이 그 책을 처음으로 꺼내는 것처럼 보도자료에 ‘최초 출간’을 버젓이 삽



재번역·출간된 책 가운데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아직 많으리라 예상된다. 이들을 찾아내 서로 비교·검토하고 재번역의 의미를 냉정히 판단하는 일이 그 책을 신간으로 소개한 서평자와 출판사측에 시급히 요구되는 임무다.

입·작성해 배포한다든지, 이전에 같은 책이 출간됐음에도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중앙일보》북섹션팀의 김정수 기자는 “기사를 쓰기 전, 보도자료를 참고한다. 번역자에 대한 자료나 기획의도 같은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보다보면 보도자료가 책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한다.

《문화일보》배문성 기자 역시 “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일단은 기자 책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출판사에서 좀더 정확한 보도자료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재출간이라는 사실이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을 경우 이전에 출간된 책과 번역이 어떻게 다른지, 첨가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줄 수 있다. 따라서 한층 밀도 높게 리뷰할 수 있으며, 이는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출판사 관계자들 역시 지금까지는 과거의 관행에 따라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해왔다고 말한다. 동아시아의 한성봉 대표는 “《공자 노자 석가》의 보도자료를 만들 때 이 책이 이미 출간됐다는 사실을 첨가해야 할지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출판계에 이런 사례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따로 보도자료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출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권의 책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노고를 인정받고, 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도자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장점을 적극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책을 널리 읽히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이다. 책은 저자만이 아닌 편집자의 재해석과 재연출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다. 또한 독자들도 여러 책의 번역과 장정, 편집 등을 비교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를 수 있으니 이득이 된다.

이번 《공자 노자 석가》의 보도 사례는 우리의 서평문화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책이 이미 번역·출간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누락시킨 채 보도한 지면도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명백히 실수며 출판담당 기자로서의 무지를 드러낸 사례였다. 또한 보도자료에 이런 사실을 누락시킨 출판사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책은 독자를 위해 만들어지며 서평 또한 책이나 출판사, 서평자가 아닌 독자를 위해 존재한다. — 최갑수 기자